

# 일본 메이지신궁(明治神宮) 봉납스모(奉納相撲)의 기원 및 사회문화적 맥락\*

김 용 의\*\*  
yukim@jnu.ac.kr

## < 目 次 >

- |                    |                                      |
|--------------------|--------------------------------------|
| 1. 제례와 스모          | 3. 메이지신궁과 전일본역사선사권대회<br>(全日本力士選士権大会) |
| 2. 메이지신궁의 창건과 봉납스모 | 4. 봉납스모의 사회문화적 맥락                    |

Key word : 메이지 신궁(Meiji Jingu Shrine), 봉납스모(Hono-sumo), 근대화(modernization), 내셔널리즘(nationalism)

## 1. 제례와 스모

일본에서는 신사의 제례에서 스모(相撲)를 봉납하는 일이 잦다. 이들 스모는 신사에서 거행하는 제례의 여흥으로 행하기도 하고, 제례의 일환으로 엄숙한 의식으로 봉납하기도 한다.<sup>1)</sup> 특히 메이지신궁(明治神宮), 이세신궁(伊勢神宮), 야스쿠니신사(靖国神社) 등과 같이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특별한 위상을 지닌 신사에서는 정기적 혹은 부정기적으로 스모를 봉납하는 의식을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A2A01026365)

\*\* 전남대학교 일어일문학과 교수, 일본문화학 전공

1) 예를 들면 민속학자 山田知子は 일본 각지의 신사 및 사원의 제례에서 거행되는 스모에 관해서 민속학적 관점에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연구하였다. 山田知子(1996) 『相撲の民俗史』東京書籍 pp.109-224. 스모와 제례의 관련성 및 사례에 관해서는 다음 연구도 참고가 된다. 新田一郎(1994) 『相撲の歴史』山川出版社 pp.44-69

거행한다.<sup>2)</sup> 일본의 매스컴에서는 이 의식을 행할 때마다 대대적으로 보도한다. 예를 들면 마이니치신문(毎日新聞)의 다음 기사를 참고하기로 한다.

오즈모(大相撲)의 제72대 요코즈나(横綱)로 승진한 기세노사토(稀勢の里)[30세, 본명은 하기와라 유타카(萩原寛), 이바라키현 출신, 다고노우라베야(田子ノ浦部屋)의 요코즈나 추거식(推舉式)과 봉납 도효이리(奉納土俵入り)가 27일, 도쿄에 있는 메이지신궁에서 거행되었다. 기세노사토는 일본스모협회의 핫카쿠(八角) 이사장인 요코즈나, 호쿠토우미(北勝海)로부터 추거장과 요코즈나 밧줄을 건네받았다. 이어서 다치모치(太刀持ち)로 후배 선수인 고무스비(小結) 계급의 다카야스(高安), 쓰유히라이(露払い)로 같은 문하의 마에가시라(前頭) 계급의 쇼호잔(松鳳山)을 데리고 ‘운류가타(雲龍型)’ 도효이리를 봉납하였다.<sup>3)</sup>

이 기사에 의하면 스모에서 최고 계급인 요코즈나로 새롭게 승진한 기세노사토라는 프로 스모선수가 메이지신궁에서 ‘운류가타(雲龍型)’라는 유형의 도효이리 의식을 거행했다고 한다.<sup>4)</sup> 우선 어떤 연유에서 요코즈나가 메이지신궁에서 도효이리 의식을 행하게 된 것인지, 그리고 메이지신궁은 도효이리 의식 이외에 스모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

결론을 먼저 말한다면, 이는 ‘스모의 내셔널리즘’에서 기인한다. 근대에 들어서서 스모는 내셔널리즘 성격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김용의는 근대 시기에 ‘스모의 내셔널리즘’이 형성되는 과정에 스모의 신화적 기원, 신도(神

- 2) 이에 관해서는 야스쿠니신사에서 거행하는 봉납스모의 내셔널리즘 성격에 관해서 지적한 김용의의 연구, 봉납스모의 제의적 성격을 분석한 조규현의 연구를 참조. 김용의(2013) 『야스쿠니신사의 봉납스모와 스모의 내셔널리즘』 『비교일본학』 제29집 한양대학교 일본학국제비교연구소 pp.1-20. 조규현(2015) 『야스쿠니신사 봉납스모(奉納相撲)의 제의적 고찰-임시대제(臨時大祭)의 초혼식(招魂式)과의 관련을 중심으로』 『일본연구』 제24집 고려대학교글로벌일본연구원 pp.111-135
- 3) 毎日新聞 2017년 1월 28일 기사. <https://mainichi.jp/search> (열람일 : 2018년 10월 5일) 이하 본고에서 인용하는 일본어 자료의 한국어 번역은 필자의 줄역이다.
- 4) 도효이리는 주로(十兩) 계급 이상의 스모 선수들이 스모를 겨루는 도효(土俵) 위에서 독특한 몸동작을 보여주는 의식을 가리킨다. 요코즈나의 도효이리 의식을 가리켜 특별히 데즈이리(手数入り)라고 부른다. 요코즈나 도효이리는 역사적으로 신사 및 불각을 세울 때의 지진제(地鎮祭)와 관련이 깊다고 한다. 요코즈나 도효이리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고 新山善一(1993) 『大相撲おもしろ話』 丸善株式会社 p.130. 김용의(2014) 『일본의 스모-종교의례인가 스포츠인가』 민속원 pp.54-55

道)와의 유착, 고대 이래의 스모의 역사성, 저변문화를 형성하는 민속종교적 성격, 천황의 스모 관람, 유력한 스모 애호가들의 후원, 스모계와 군부 세력의 밀착 등이 직접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파악하였다.<sup>5)</sup> 메이지신궁과 스모의 관계는 근대 이후 일본의 내셔널리즘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서 시작하여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본고는 메이지신궁의 예제에 즈음해서 거행되는 봉납스모의 기원 및 변천 과정에 대해서 ‘스모의 내셔널리즘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현재 매년 료고쿠(兩國)에 있는 국기관(國技館)에서 ‘전일본역사선사권대회(全日本力士選士権大会)’라는 이름으로 개최하는 스모대회의 기원 및 변천과정을 중심으로, 근대에 들어서 스모가 메이지신궁과 밀접한 관련을 갖게 된 사회문화적 맥락을 주목하고자 한다.

## 2. 메이지신궁의 창건과 봉납스모

메이지신궁은 현재 도쿄 도 시부야 구 요요기가미조노 정(東京都渋谷区代々木神園町)에 위치한 신사이다. 해마다 연말연시에 일본인들이 가장 많이 참배를 가는 신사로 유명하다. 전국 각지에서 옮겨 심은 나무로 울창한 외원(外苑) 이외에 주된 전각으로는 본전(本殿), 가구라전(神樂殿), 보물전, 무도장(武道場) 등이 있다. 제신은 메이지천황과 쇼켄(昭憲) 황태후이다. 연중 다양한 제례를 거행하는데, 주요 제례로는 세단제(歳旦祭, 1월 1일), 기원제(紀元祭, 2월 11일), 쇼켄황태후제(昭憲皇太后祭, 4월 11일), 메이지천황제(明治天皇祭, 7월 30일), 진좌기념제(鎮坐記念祭, 11월 1일), 예제(例祭, 11월 3일), 니나메사이(新嘗祭, 11월 23일), 천장제(天長祭, 12월 23일) 등이 있다. 이 가운데 메이지신궁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제례는 예제이다. 이 예제를 거행하는 날은 메이지천황의 생일로 궁중에서 칙사가 차견(差遣)되기도 한다.<sup>6)</sup>

5) 김용의(2014) 「일본 스모(相撲)의 국기(國技) 정착과 천황의 관람, 『비교민속학』 제51집 비교민속학회 pp.37-38

6) 이하 메이지신궁의 창건 및 조영에 대해서는 다음 문헌을 참조. 内務省神社局編(1930) 『明治神宮造営誌』 内務省神社局 pp.1-120. 메이지신궁의 개요에 관해서 간단하게 설명한

메이지신궁의 창건은 1915년 5월 1일 관폐대사(官幣大社) 메이지신궁을 창건한다는 내무성 고시를 발표하면서 시작되었다. 5년 후인 1920년 11월 1일 메이지천황의 신령을 진좌하는 진좌제(鎮坐祭)를 거행하였다. 진좌제 거행에 즈음하여 제전을 준비하는 조직으로 총무부, 제의부, 경비부, 경기부라는 4부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스모는 스모계(相撲系)라는 명칭으로 경기부에 속했는데, 경기부에는 그밖에도 궁도, 격검(擊劍), 유도, 마술(馬術) 등의 경기가 속해 있었다. 진좌제에 즈음하여 제례를 봉축하기 위한 여흥으로 이들 경기를 즐길 수 있도록 준비했던 것이다. 실제로 진좌제가 거행된 다음날인 11월 2일 메이지신궁 경내의 보물전 및 외원에서 궁도, 스모, 경마, 격검, 유도, 야부사메(流鏑馬) 등의 경기가 진행되었다. 메이지신궁의 조영에 관해서 기록한 『메이지신궁조영지(明治神宮造営誌)』에는 스모 경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sup>7)</sup>

2일, 3일 양일에 걸쳐 각각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반 사이에 오니시키(大錦) 편과 도치기야마(栃木山) 편으로 나누어 스모를 겨루었다. 오니시키 편이 첫날 및 둘째 날 승부에서 모두 대승을 거두어 손에 우승기를 들어 올리고 신궁에 참배하였다.<sup>8)</sup>

여기 이름이 등장하는 오니시키(大錦)와 도치기야마(栃木山)는 당시 오키즈나 계급에 올라서 크게 활약하던 스모 선수들이다. 이 두 사람이 각각 팀장이 되어 두 팀으로 나누어 이들 동안 스모대회를 벌인 결과, 이들 모두 오니시키 편이 승리를 거두었다는 기록이다. 스모 연구의 권위자 사카이 다다마사(酒井忠正)의 『일본스모사 중권(日本相撲史 中卷)』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더욱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본년(1920년, 필자) 10월 31일 밤 메이지신궁에 혼령을 모셔 와서 11월 1일, 2일에

---

최근 자료로는 다음을 참조. 明治神宮 監修(2018) 『明治神宮案内帖』 バルコ出版 pp.1-175. 메이지신궁의 현재 동향에 대해서는 다음 사이트를 함께 참조. <http://www.meijijingu.or.jp/> (열람일 : 2018년 10월 5일).

- 7) 진좌제의 진행에 관해서는 다음 문헌의 뒷부분에 溝口白羊가 서술한 ‘鎮座祭拜觀記’가 수록되어 있어서 당시 진좌제의 진행 상황을 파악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溝口白羊編(1920) 『明治神宮写真帖 鎮座祭紀念』 日本評論社出版部 pp.1-22
- 8) 内務省神社局編(1930) 『明治神宮造営誌』 内務省神社局 p.391

진좌제(鎭坐祭)를 그리고 3일에 예제를 거행하도록 하였다. 도쿄오즈모협회(東京大角力協會)에서는 신려(神慮)를 위로하고 받들기 위해서 2일, 3일 이틀 동안 신궁 외원(外苑)에서 오니시키(大錦)와 도치기야마(栃木山) 두 요코즈나 일행이 봉납스모를 거행하도록 하였다. 이 봉납스모를 제1회로 하여 금후 신궁조영국(神宮造營局)의 의향으로 매년 11월 3일에 예제 봉납스모를 개최하기에 이르렀으며 오즈모협회에서 이를 승인하게 되었다. 주요 승부는 다음과 같다.<sup>9)</sup>

이 기록을 통해서 메이지신궁에서 봉납스모를 거행하게 된 기원을 확인할 수 있다. 메이지신궁이 창건되고 메이지천황의 훈령을 진좌하는 진좌제를 거행하면서 스모를 봉납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후 신궁조영국의 의향을 받아들여 매년 11월 3일 예제에 스모를 봉납하기에 이르렀다. 예를 들면 『일본스모사 중권』에는 제2회 봉납스모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작년의 예에 따라서 신궁의 외원 스모장에서 11월 2일, 3일 이틀 동안에 봉납스모를 개최하였다. 미스기이소(三杉儀)와 구라가다케(鞍ヶ嶽) 일행이 봉사하였다. 이틀째 주요 승부는 다음과 같다.<sup>10)</sup>

1920년 제1회 봉납스모에 이어서 1921년 11월 2일과 3일 이틀 동안에 제2회 봉납스모가 거행되었다. 이때는 미스기이소(三杉儀)와 구라가다케(鞍ヶ嶽)가 각각 팀장이 되어 양팀으로 나뉘어 승부를 벌였다. 이어서 1922년 11월 2일과 3일에 제3회 봉납스모가 거행된다. 1922년 제3회 봉납스모는 메이지신궁과 스모의 관계를 고찰하는 데에 있어서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왜냐하면 제3회 봉납스모를 계기로 오즈모협회(大相撲協會)에서 메이지신궁에서 항구적으로 스모대회를 개최할 것과 스모경기장 설치를 요청하기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 점에 대해서 확인하기로 한다.

(1922년, 필자) 11월 2일과 3일 이틀 동안 메이지신궁 외원에서 봉납스모를 거행했다. 주요 승부는 다음과 같다. …(중략)… 게다가 당년 오즈모협회(大相撲協會)에서 메이지신궁 당국 및 신궁봉찬회(神宮奉贊會)에 신궁 예제에서 항구적으로 스모

9) 酒井忠正(1964) 『日本相撲史 中巻』 日本相撲協會 p.328

10) 酒井忠正(1964) 『日本相撲史 中巻』 日本相撲協會 p.336

경기를 봉납하겠다는 것과 신궁 외원에 스모경기장을 설치하기 위한 찬동을 구하였다. 그러자 신궁 당국에서 흔쾌히 승낙하였다. 그래서 바로 봉찬회에 스모장 설치 청원서를 제출하고 스모협회에서도 청원서를 제출하여 양해를 얻고자 노력한 결과, 봉찬회에서도 그 뜻을 받아들여이기에 이르렀다.<sup>11)</sup>

메이지신궁의 창건에 따른 진좌제를 계기로 시작된 스모의 봉납은 신궁조 영국의 의향으로 매년 11월 3일 예제에 봉납스모를 개최하기에 이르렀으며 이후 스모 관계자들의 요청에 따라서 메이지신궁 봉납스모를 항구적으로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말하자면 메이지신궁 관계자들과 스모 관계자들 사이에 스모를 매개로 하는 끈끈한 유착관계가 형성된 셈이다. 이 같은 유착관계가 가능했던 것은 무엇보다도 스모의 본질적인 성격 및 역사적 전개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스모는 일본에서 흔히 『고사기(古事記)』신화의 다케미가즈치노 미코토(建御雷命)와 다케미나카타노 미코토(建御名方命)라는 두 신의 ‘힘겨루기’에서 비롯되었다고 간주된다. 말하자면 스모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닌 유구한 역사를 지닌 태초의 신화적 기원을 지니고 있는 셈이다. 민속학적 관점에서 보자면 한 해 농사의 풍흉을 점쳐보는 농경의례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 이 때문에 근대 이전부터 전국 각지의 신사에서는 제례를 거행할 때에 그 일환으로 스모를 봉납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스모는 역사적으로 천황을 비롯한 유력한 권력자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오늘날에 이르렀다. 에도시대에는 신사와 사원에서 전각의 건축자금을 모으기 위한 수단으로 이른바 권진스모(勸進相撲)를 빈번하게 개최하기도 하였다.<sup>12)</sup> 메이지신궁의 창건 및 조영을 주도했던 관계자들은 이 같은 스모의 본질적 성격과 역사적 전개과정을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있었다. 그 결과 이들의 요청으로 자연스럽게 매년 11월 3일 예제에 봉납스모를 개최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또 한 가지 메이지신궁 예제에 스모를 항구적으로 봉납하게 된 결정적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다. 근대에 접어들어 스모의 위기를 절감한 스모 관계자들이

11) 酒井忠正(1964) 『日本相撲史 中巻』 日本相撲協會 p.347

12) 스모의 신화적 기원, 농경의례 관련설, 천황을 비롯한 권력자들과의 관계 등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 김용의(2014) 『일본의 스모-종교의례인가 스포츠인가』 민속원 pp.25-37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메이지천황, 메이지신궁, 국가신도로 이어지는 정치적 권력 및 종교적 권위를 이용하고자 의도했기 때문이다. 스모는 일본의 근대화(서구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뜻밖의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 그 위기는 스모를 부정적으로 인식했던 서구인들에 의해서 발신되었다. 즉 서구인들이 스모를 야만스럽게 인식하고 부정하자 이에 자극을 받은 일본인들 사이에서 이른바 ‘스모무용론’ 내지는 ‘스모금지론’이 횡행하기 시작한다. 말하자면 ‘스모의 대공황 시대’<sup>13)</sup>가 시작된 셈이다. 스모연구가 요코야마 겐도(横山健堂)의 다음 글에서 일본의 스모가 근대화 과정에서 얼마만큼 위기에 처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서양문화의 조류가 일시적으로 극히 범람하여 첫째도 서양 둘째도 서양하는 식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문물을 파괴하지 않고서는 멈출 것 같지 않아 보였다. 쌀로 지은 밥을 먹어서는 안 되고 된장국도 안 된다는 시대로, 스모는 야만스런 유희으로 간주되어 나체 춤이라고 조롱당했다. 이 굴욕적인 스모대회를 빨리 금지시키라는 극단적인 여론까지 형성되었다. 스모계에 공전의 위기가 내습했던 셈이다.<sup>14)</sup>(밑줄, 필자)

물론 당시에 스모 관계자들이 ‘스모계에 공전의 위기’를 대책도 없이 바라보고만 있지는 않았다. 스모를 부정하고 멸시하는 사회적 여론의 추이를 지켜 보면서 다양한 자구책을 강구하기도 하였다. 그 자구책 중에서 비교적 널리 알려진 것이 스모 선수들이 베테구미(別手組)라는 소방대를 조직하여 사회에 봉사하고자 했던 사례이다. 이 소방대는 일본사회에서 스모금지론이 비등하자, 1876년 도쿄의 스모 관계자 중심으로 소방대 활동을 통해서 사회에 봉사함으로써 스모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불식하고자 조직되었다. 이 소방대는 그 후 약 2년 동안 유지되었으며 스모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회여론을 무마하는 데에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sup>15)</sup>

이처럼 메이지신궁의 봉납스모는 스모의 본질적 성격과 역사적 전개과정을

13) 横井春野(1922) 『相撲見物手引』 野球界社 p.13

14) 横山健堂(1943) 『日本相撲史』 富山房 p.155

15) 베테구미(別手組)의 조직 및 활동 내역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 風見明(2002) 『相撲 國技となる』 大修館書店 pp.12-15. 横井春野(1922) 『相撲見物手引』 野球界社 p.13

잘 파악하고 있었던 메이지신궁 쪽과 스모계를 엄습한 공전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했던 스모 관계자들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여 성립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스모의 본질적 성격과 역사적 전개과정은 스모의 내셔널리즘이라는 표현으로 집약할 수 있겠다. 다시 말하자면 당시 유행하던 내셔널리즘에 편승하여 메이지신궁의 봉납스모가 시작되었던 것이다.

### 3. 메이지신궁과 전일본역사선사권대회(全日本力士選士権大会)

메이지신궁 진좌제에서 스모를 봉납한 이후, 1925년 11월 3일 메이지신궁의 스모장에서 신궁의 예제(例祭)를 봉축하여 스모대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이 스모대회는 통칭 ‘메이지신궁스모대회’라고 부르지만 정식 명칭은 ‘전일본역사선사권대회(全日本力士選士権大会)’이다.<sup>16)</sup>(이하, ‘선사권대회’로 약칭)

선사권대회는 애초에 메이지신궁경기대회(明治神宮競技大會)와 함께 출발하였다. 메이지신궁경기대회는 당시 내무성 주관으로 1924년 제1회 대회, 1925년 제2회 대회가 개최되었다. 1926년 제3회 대회부터 1937년 제9회 대회까지는 메이지신궁체육대회라는 명칭으로 메이지신궁체육회에서 주관하였다. 1939년 제10회 대회부터 1941년 제12회 대회까지는 메이지신궁국민체육대회라는 명칭으로 바뀌어 후생성에서 주관하게 되었다. 1942년 제13회 대회 및 1943년 제14회 대회는 메이지신궁국민연성대회라는 명칭으로 역시 후생성에서 주관하였다. 이 대회는 일본의 패전 후에 국민체육대회라는 명칭으로 계승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sup>17)</sup>

메이지신궁경기대회는 현재 일본에서 행해지고 있는 국민체육대회의 기원으로 일본의 체육대회 역사를 고찰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뿐만 아니라 본고에서 주목하는 메이지신궁과 스모의 관련성을 밝히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위치에 있다. 우선 메이지신궁경기대회를 개최하고자 했던 취지를 살

16) 정확하게는 메이지신궁예제봉축 전일본역사선사권대회(明治神宮例祭奉祝全日本力士選士権大会)이다.

17) 당초 메이지신궁 창건이 계기가 되어 시작된 ‘경기대회’가 시국의 변화에 따라서 이를 반영하면서 ‘체육대회’ ‘국민체육대회’ ‘국민연성대회’ 등으로 명칭이 변경된 점이 흥미롭다. 이 점에 관해서는 다른 기회에 논하고자 한다.



펴보기로 한다.

메이지신궁 외원에 축조중인 대운동경기장은 1924년 10월에 그 공사를 준공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서 전국에 있는 선수들을 도쿄로 모이게 하여 신 앞에서 영광된 전국적인 일대 경기를 행하게 되었다. 이는 오직 메이지 대제의 덕성을 경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국민들의 신체단련 및 정신의 작흥에도 그 효과가 적지 않을 것으로 믿었기 때문이다. 올해를 시작으로 해마다 메이지신궁 예제를 계기로 메이지신궁 경기대회를 개최하는 안을 수립하여 그 분야의 관계자들과 의논과 협의를 거듭하여 마침내 올해 8월 근본적인 계획을 확립하였다. 경비로는 보건위생 조사 및 장려를 위한 제 경비 중에서 일금 만원을 지출한다는 건도 대략 결정되어서 문부성, 육해군성, 지방장관 등에게 다음에 적은 바와 같이 배려할 것을 의뢰하였다.<sup>18)</sup>(밑줄, 필자)

앞의 인용문은 당시 내무성 위생국에서 펴낸 『메이지신궁경기대회 보고서 제1회(明治神宮競技大会報告書 第1回)』에 기술된 ‘취지 및 개요’이다. 이에 따르면 메이지신궁 대운동경기장의 준공에 즈음하여 “오직 메이지 대제의 덕성을 경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국민들의 신체단련 및 정신의 작흥에도 그 효과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에서 개최하였다. 경비로는 보건위생 조사 및 장려를 위한 명목으로 지출하였다. 그리고 행정관청으로는 문부성, 육해군성, 지방장관 등이 관여하였다. 당시 사람들의 ‘신체관’ 내지는 ‘체육관’의 일단을 엿볼 수 있어서 주목된다. 이어서 제1회 메이지신궁경기대회에서 진행된 스모 경기에 관한 기록을 살펴보기로 한다. 스모 경기는 메이지신궁경기대회에서 검도, 유도, 궁도 등과 함께 제1회 대회부터 줄곧 포함되었다.<sup>19)</sup>

(1925년, 필자)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5일 동안에 걸쳐 메이지신궁 외원에서 신궁경기대회가 거행되었다. 스모경기가 열린 첫째 날은 11월 1일 오전 8시부터 시작되어 청년단 대항 및 육해군 대항 시합이 행해졌다. 둘째 날인 2일은 오전 8시부터 전국 대학 전문학교 대항이 행해진 후에 오후 2시 도치기야마(栃木山)와 쓰네노하

18) 内務省衛生局編(1925) 『明治神宮競技大会報告書 第1回』 内務省衛生局 p.1

19) 제1회 메이지신궁경기대회에서 진행된 스모의 경기내용 및 승패에 관해서는 다음 보고서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内務省衛生局編(1925) 『明治神宮競技大会報告書 第1回』 内務省衛生局 pp.328-337

나(常ノ花) 일행에 의한 시범 스모가 행해졌다. 마지막 날인 3일에는 학생 스모가 오후 4시 10분에 종료한 후 대와노우미베야(出羽ノ海部屋)에 속한 히로시마(広島)라는 선수(후에 廣錦으로 개명)가 유미도리 의식(弓取の式)을 거행하고 일정을 끝냈다. 게다가 마지막 날에는 지치부노미야(秩父宮) 전하가 대회장에 임석하여 우수한 선수를 축하하셨다.<sup>20)</sup>(밀줄, 필자)

이 기록에 따르면 스모 경기는 10월 30일부터 11월 3일에 이르기까지 5일 동안 개최하였다. 청년단, 육해군, 대학 및 전문학교, 학생 스모의 순으로 진행되었는데, 대회 출장자에 관해서는 ‘메이지신공경기대회 스모부 경기규정’에서 정하고 있다.<sup>21)</sup> 마지막에 유미도리 의식(弓取の式)을 거행하고 일정을 끝냈는데,<sup>22)</sup> 특히 주목되는 것은 황족 지치부노미야(秩父宮)가 대회장에 임석하여 우수한 선수를 축하하였다는 대목이다. 역사적으로 스모는 천황이 관람하는 스모를 천람스모(天覽相撲), 황태후 혹은 황태자가 관람하는 스모를 태람스모(台覽相撲)라 부르며 천황가와 밀접한 연관을 맺으며 발전해 왔다. 1925년 처음 열린 메이지신공경기대회의 스모에도 지치부노미야 황족이 임석하여 관람하였다. 말하자면 근대 이전부터 이어지던 천황가와 스모의 연관성이 근

20) 酒井忠正(1964) 『日本相撲史 中巻』 日本相撲協會 p.365

21) 참고로 ‘메이지신공경기대회 스모부 경기규정’에서 정한 출장자 자격 및 대진에 관한 규정을 적어 놓는다. 이 규정을 보면 스모대회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매우 세밀하게 정해 놓았으며 경기 종목도 선수의 신분 및 직업에 따라서 아마추어와 프로를 엄격하게 구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출장자 자격 : 제4조 본 대회에 출장하는 선수는 왼쪽에 적은 항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필요가 있다. (가) 대학 및 전문학교 정과에 재학하는 자(연구과, 선과, 특과에 재학하는 자는 자격이 없는 것으로 한다) (나) 도부현 지사가 추천하는 공사립 중등학교에 재학하는 자 (다) 각 도부현에서 선발된 청년단원 (라) 육해군 군인으로 주무 관청에서 선발하여 공인한 자. 단 앞의 항에 속하는 자라 할지라도 과거 또는 현재에 직업역사단(力士團)에 가입한 자는 무자격으로 한다. (마) 도쿄오즈모협회(東京大相撲)에서 선발된 자. 대진 : 제1조 본 대회의 경기 종목은 학생, 생도, 청년단, 군인, 역사(力士)의 다섯 종류로 나눈다. 그 대진 방법은 학생 및 생도는 학교, 청년단은 도부현, 군인은 개인우승전으로 하고 추첨을 통해 이를 정한다. 역사의 경기는 협회에서 정한 반스케(番付)를 기준으로 하여 대진하도록 하고 승리하여 남은 자들이 결승을 치른다. 内務省編纂(1925) 『神宮競技規則全書』 萬朝報社 pp.265-269

22) 유미도리 의식(弓取の式)이란 스모대회를 마감하는 의식으로 마쿠노시타(幕下) 계급에 속하는 선수가 활을 들고 거행한다. 이 의식의 기원은 헤이안시대의 스모세치에(相撲節會)에서 비롯되었다. 김용의(2014) 『일본의 스모-종교의례인가 스포츠인가』 민속원 pp.62-63

대 이후에도 지속된 셈이다.

메이지신궁경기대회의 출발과 함께 시작된 선사권대회는 메이지신궁경기대회가 변화하자 더불어서 많은 변화를 겪으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 변화를 겪으면서 현재는 선사권대회 당일 오전 중에 메이지신궁 신전에 일본스모협회의 임원과 요쿠즈나가 참배한 후에 요쿠즈나의 도효이리 의식을 거행한다. 이후 오후에 국기관에서 선사권대회를 진행한다. 다음의 [표]는 필자가 1925년 제1회 선사권대회부터 2018년 제77회 대회에 이르기까지 우승자 및 주요 변천 과정을 정리한 결과이다.<sup>23)</sup>

<표> 전일본역사선사권대회(全日本力士選土権大会)의 추이

회수	년도	우승자	비고	회수	년도	우승자	비고
1	1925	栃木山	메이지신궁경기대회	40	1980	隆の里	
2	1926	常ノ花	메이지신궁체육대회	41	1981	若乃花	
3	1929	常ノ花	메이지신궁체육대회	42	1982	隆の里	
4	1931	玉錦	메이지신궁체육대회	43	1983	千代ノ富士	
5	1933	玉錦	메이지신궁체육대회	44	1984	朝湖	
6	1935	男女ノ川	메이지신궁체육대회	45	1985	朝湖	이후 료고쿠 국기관에서 개최
7	1937	玉錦	메이지신궁체육대회	46	1986	千代ノ富士	
8	1939	双葉山	메이지신궁국민체육대회로 바뀌면서 전일본역사선사권대회 독립. 신궁 위원에서 봉납스모 개최	47	1987	北勝海	
9	1940	双葉山	신궁 진좌20주년 기념, 봉납전일본역사선사권대회, 이후 매년 개최	48	1988		1988년 쇼와천황의 병환으로 중지
10	1941	名寄岩		49	1989	千代ノ富士	
11	1942	双葉山		50	1990	大乃國	
12	1943	双葉山	12회 대회 이후 전쟁으로 인해 중단	51	1991	霧島	
13	1952	千代ノ山	메이지천황탄생백년봉축행사의 일환으로 부활	52	1992	曙	하와이
14	1953	鏡里		53	1993	曙	하와이

23) 주로 다음의 자료 및 사이트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酒井忠正(1964) 『日本相撲史 中巻』 日本相撲協會 pp.365-387. 高永武敏(1982) 『相撲昭和史 激動の軌跡』 恒文社 pp.315-422. <https://ja.wikipedia.org/wiki/> (열람일 : 2018년 10월 5일).

15	1954	栢錦		53	1994	曙	하와이
16	1955	大内山		54	1995	武蔵丸	하와이
17	1956	松登		55	1996	貴乃花	
18	1958	朝汐	1957년 우천으로 중지, 1958년부터 구라마에 국기관에서 개최	56	1997	若乃花	
19	1959	若黒羽		57	1998	貴ノ浪	
20	1960	大鵬		58	1999	千代大海	
21	1961	柏戸		59	2000	曙	하와이
22	1962	栢ノ海		60	2001	武蔵丸	하와이
23	1963	豊山		61	2002	朝青龍	몽골
24	1964	大鵬		62	2003	千代大海	
25	1965	若見山		63	2004	朝青龍	몽골
26	1966	玉乃島		64	2005	琴歐洲	불가리아
27	1967	佐田山		65	2006	安馬	몽골
28	1968	大鵬		66	2007	白鵬	몽골
29	1969	玉乃島		67	2008	安馬	몽골
30	1970	北の富士		68	2009	日馬富士	몽골
31	1971	大麒麟		69	2010	把瑠都	에스토니아
32	1972	豊山		70	2011	琴歐洲	불가리아
33	1973	輪島		71	2012	日馬富士	몽골 출신
34	1974	北の湖		72	2013	日馬富士	몽골 출신
35	1975	大錦		73	2014	鶴龍	몽골 출신
36	1976	北の湖		74	2015	豪榮道	
37	1977	北の湖		75	2016	稀勢の里	
38	1978	若乃花		76	2017	稀勢の里	
39	1979	三重ノ海		77	2018	阿武咲	

[표]를 참고하며 두드러진 변화의 추이를 확인하기로 한다. 메이지신공경기 대회라는 이름으로 출발한 대회가 메이지신공체육대회를 거쳐, 1939년부터 메이지신공국민체육대회로 이름이 바뀌면서 선사권대회는 여기서 독립하여 메이지신공 외원에서 따로 스모대회를 치르게 된다. 1940년에는 메이지신공 진좌 20주년을 봉축하는 의미에서 선사권대회를 개최하였다. 이후 매년 개최 하였으나 1943년 12회 대회 이후에 전쟁으로 인해서 한 동안 중단되었다가 1952년에 다시 부활하기에 이른다. 대회의 부활에는 메이지천황의 탄생 백년을 기념하기 위한 의미가 담겨 있었다. 이후 매년 이어지다가 1957년 우천으로 중지하게 된다. 그러자 1958년부터는 구라마에(藏前) 국기관에서 개최하기에 이른다. 이후 중지하는 일이 없이 개최하다가 1985년부터는 현재의 료고쿠(兩

國) 국기관으로 옮겨 개최하게 되었다. 1988년은 당시 쇼와천황의 병환이 악화되어 중지되었으며, 이후 매년 개최하며 현재에 이르렀다.

선사권대회는 현재 일본스모협회에서 주관하는 혼바쇼(本場所)라고 부르는 공식대회와는 다르게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방식은 현재도 지켜지고 있다. 다음 기록에 선사권대회 초기의 진행 및 시합 결과가 언급되어 있다.

메이지신궁 체육대회에서 행하는 전일본역사선사권경기(全日本力士選土權競技)는 11월 2일, 3일 이들 동안 토너먼트 방식으로 거행되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중략)… 준결승에서 쓰네노하나(常ノ花)가 니시노우미(西ノ海)를 밀어내고, 미스기이소(三杉磯)는 후쿠야나기(福柳)를 물리쳐서 쓰네노하나와 미스기이소가 결승전에 진출하였다. 쓰네노하나가 미스기이소를 집어던져서 물리치고 제1위 우승자가 되었다. 제2위 결정전에서는 후쿠야나기가 니시노우미를 내던지고 미스기이소도 물리쳐서 그가 제2위, 미스기이소가 제3위를 차지하였다.<sup>24)</sup>

메이지신궁의 건립 때부터 시작된 메이지신궁과 스모의 관련성은 진좌제의 봉납스모를 비롯하여 메이지신궁경기대회 및 메이지신궁체육대회를 거치면서 선사권대회라는 이름으로 더욱 밀착하게 되었다. 양자가 밀착해가는 과정은 일본에서 스모의 내셔널리즘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이기도 하며, 그 내셔널리즘의 전통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일본의 스모는 그 같은 내셔널리즘을 축적해가는 과정에서 ‘국기(國技)’라는 위상을 획득하고 확립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 4. 봉납스모의 사회문화적 맥락

메이지신궁은 일본 전국 각지에 소재한 유명한 신사 가운데 이세신궁이나 야스쿠니신사와 더불어 일본적 내셔널리즘의 성지 내지는 총화와 같은 신도 시설이다. 스모 역시 신화적 기원, 민속적 저변, 천람스모 및 태람스모의 존재

24) 酒井忠正(1964) 『日本相撲史 中巻』 日本相撲協會 p.384

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역사적으로 내셔널리즘적인 요소가 강한 스포츠이다.

따라서 근대에 들어서서 메이지신궁의 창건을 봉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된 메이지신궁의 봉납스모는 애초부터 필연적으로 내셔널리즘적인 성격이 내포되어 있었다. 이 같은 내셔널리즘적인 성격으로 인해 메이지신궁과 스모는 서로의 필요성을 인식하며 끈끈한 유착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본고에서는 메이지신궁 봉납스모의 기원 및 변천과정을 대상으로, 메이지신궁과 스모가 상호작용을 하며 내셔널리즘을 강화하고 표출해 가는 구조적·원리적 측면을 주목하고자 하였다. 이 같은 구조적·원리적 측면에는 여러 사회문화적 맥락이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그 사회문화적 맥락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스모는 일본의 전통문화 중의 한 종목으로 근대 이전에 이미 민속 차원에서 스모를 관람하고 즐기던 저변이 폭넓게 형성되어 있었다. 둘째 마찬가지로 근대 이전부터 전국 각지의 신사 및 사원의 제례에서 스모를 봉납하던 신앙적 전통을 근대 이후에도 계승하였다. 셋째 근대화 및 서구화 과정에서 스모가 자칫 중지될 지도 모를 위기를 맞이하게 되자 스모 관계자들이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자구책으로 메이지신궁을 비롯한 신도와의 유착관계를 강화하기에 이르렀다. 넷째 스모는 역사적으로 내셔널리즘적인 요소가 강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내셔널리즘을 강화해가던 근대 이후의 역사적, 정치적, 사회적 분위기에 쉽게 편승하였다.

이 같은 사회문화적 맥락이 함께 어우러져 이른바 ‘국기’ 스모가 탄생하여 오늘날에 이르렀다고 말할 수 있다.

#### <參考文獻>

- 김용의(2013) 「야스쿠니신사의 봉납스모와 스모의 내셔널리즘」 『비교일본학』 제29집 한양대학교 일본학국제비교연구소 pp.1-20
- \_\_\_\_\_ (2014) 「일본 스모(相撲)의 국기(國技) 정착과 천황의 관람」 『비교민속학』 제51집 비교민속학회 pp.37-38
- \_\_\_\_\_ (2014) 『일본의 스모－종교의례인가 스포츠인가』 민속원 p.54-55
- 조규현(2015) 「야스쿠니신사 봉납스모(奉納相撲)의 제의적 고찰－임시대제(臨時大祭)의 초혼식(招魂式)과의 관련을 중심으로」 『일본연구』 제24집 고려대학교글

로별일본연구원 pp.111-135

- 風見明(2002) 『相撲、国技となる』大修館書店 pp.12-15  
 酒井忠正(1964) 『日本相撲史 中巻』日本相撲協會 p.328  
 高永武敏(1982) 『相撲昭和史 激動の軌跡』恒文社 pp.315-422  
 内務省編纂(1925) 『神宮競技規則全書』萬朝報社 pp.265-269  
 内務省衛生局編(1925) 『明治神宮競技大会報告書 第1回』内務省衛生局 p.1  
 内務省神社局編(1930) 『明治神宮造営誌』内務省神社局 pp.1-120  
 新山善一(1993) 『大相撲おもしろ話』丸善株式會社 p.130  
 新田一郎(1994) 『相撲の歴史』山川出版社 pp.44-69  
 溝口白羊編(1920) 『明治神宮写真帖—鎮座祭紀念』日本評論社出版部 pp.1-22  
 明治神宮 監修(2018) 『明治神宮案内帖』バルコ出版 pp.1-175  
 山田知子(1996) 『相撲の民俗史』東京書籍 pp.109-224  
 横井春野(1922) 『相撲見物手引』野球界社 p.13  
 横山健堂(1943) 『日本相撲史』富山房 p.155  
 毎日新聞 2017년 1월 28일 기사.  
 인터넷 사이트  
<https://mainichi.jp/search>(열람일 : 2018년 10월 5일)  
<http://www.meijijingu.or.jp/>(열람일 : 2018년 10월 5일)  
<https://ja.wikipedia.org/wiki/>(열람일 : 2018년 10월 5일)

<Abstract>

### **Origins and socio-cultural context of Hono-sumo(奉納相撲) in the Meiji Jingu Shrine**

Japanese sumo wrestled with the festivities of the shrine. This continues to this day. In particular, shrines with a special historical, social and cultural status such as the Meiji Jingu Shrine, Ise Jingu Shrine and Yasukuni Shrine regularly perform ceremonies related to sumo wrestling.

In this paper, the origins and changes of the Japanese Meiji Jingu Hono-sumo(奉納相撲) were examined with a focus on the socio - cultural context of the time. The socio-cultural context in which Meiji Jingu shogunate sumo wrestler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before the modern era, there was a base that had enjoyed watching sumo. Second, it originated from the folk tradition of dedicating sumo to the rituals of shrines and temples throughout the country since the modern era. Third, in the process of modernization, when Sumo was in danger of being abolished, Sumo Association officials strengthened their relationship with Shinto, including Meiji Shrine, as a self-help measure to escape the crisis. Fourth, it is consistent with the historical, political, and social context of strengthening nationalism as a whole. Fifth, the same socio-cultural context was combined with the so-called “national flag sumo”.